

영조대 대보단의 장소성*

김지영**

〈차 례〉

- 머리말
- 1749년 대보단 증수 논의의 쟁점
- 증수된 제단과 제향의 형식: '大造'와 '再造'의 공덕을 기념하는 제단
- 명 태조 향사로 확장된 대보단의 의미
- 증수 이후 대보단 운영과 장소성의 공고화
-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영조대 대보단 증수에는 중국의 구원병 파견에 대한 감사를 넘어 건국기 조선의 내치와 외교 정책의 중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再造 조선 혹은 조선 重興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도 개혁을 해나가려는 실천적 목적이 있었음을 논증한다. 대보단 증수는 숙종 때와 마찬가지로 의리를 기념하는 제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추진되었으며, 실제 제단도 명 황실의 제사를 잇는 것이 아닌 세 황제의 각각의 공덕을 기념한다는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구원병 파견과 관계없었던 명 태조 향사의 명분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기자', '주무왕', '조선후 책봉'을 키워드로 하는 조선 국호 이야기에는 조선과 명이 周代의 천하정치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였고, 그 감각 위에서 내치와 외교를 아우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수립되었다는 특별한 인식이 담겨져 있었다. 영조는 명 태조 향사를 통해 조선이라는 국호에 담긴 건국과 15세기 국가 체제의 의미를 재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18세기 조선의 내치와 외교 방침을 조정하고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증수 이후 18세기 말까지 대보단은 조선의 입국체제와 신뢰와 협력의 국가간 관계를 기억하고 시대에 맞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집약된 장소로 유지되었다.

[주제어] 大報壇, 尊周大義, 周禮, 조선이라는 국호, 箕子, 朝鮮侯 冊封, 조선 再造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625).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대보단은 1704년(숙종30) 12월 창덕궁 금원의 서쪽 요급문 밖에 세워졌다. 조선의 사직 제도를 모방해 쌓은 사방 25척 규모의 제단이었다. 제단으로 오르려면 9단의 층계를 거쳐야 했다. 제단을 둘러싼 墻라는 이름의 낮은 담장 밖에는 다시 바깥 담장을 쌓아 지나는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없게 했다.¹⁾ 명나라 신종의 再造藩邦 의리를 기념한 이 제단에서의 첫 제향은 1705년 3월 9일에 올려졌다.²⁾ 제향 때에는 황색의 천막 전각을 세우고 탁상 위에 ‘大明 神宗皇帝 神位’라는 글씨를 적은 황색 지방을 붙인 검은 목패를 두어, 그곳에서 제향 받는 이가 누구인지 밝혔다. 제향이 끝나면 지방은 불태워졌고, 아무 이름도 적지 않은 목패는 다시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었다.

이후 왕을 대신하는 섭행 제의 때의 의례, 사직제를 참조해 쓴 음악 등을 수정했고,³⁾ 왕의 친제도 계속되었다. 왕이 창덕궁이 아닌 다른 궁궐에 있을 때에도 창덕궁의 향실에서 대보단까지 전향하게 하는 등⁴⁾ 제향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1711년(숙종37) 연은문 께서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외는 몰라도 국내에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제향이었다.⁵⁾

숙종대 구축된 대보단은 조선의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배척되면서 오랫동안 연구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다. 이를 비판하면서 해당 시대의 맥락 속에서 대보단이 가진 위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던 정옥자의 논문이 제출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⁶⁾ 명이 멸망한 후에 조선이 중화 문화를 계승할 유일한 주체가 되었다는 인식, 복수설치 의지를 內修外攘과 自強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연결 지어 대보단이라는 장소의 시대적 의미를

1) 『숙종실록』 권40, 30년 12월 21일(정해)

2) 『숙종실록』 권41, 31년 3월 9일(계묘)

3) 『숙종실록』 권43, 32년 2월 26일(을묘); 2월 27일(병진)

4) 『숙종실록』 권48, 36년 3월 3일(무진)

5) 『숙종실록』 권50, 37년 4월 30일(무자)

6)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1985.

긍정적으로 읽어낸 연구였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논의를 보완하거나 반박하며 대보단 뿐 아니라 대보단을 구축해냈던 당대의 사유들, 대명 의리론, 존주론,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⁷⁾ 현실 중국에 대한 사대가 아니라 ‘문화적 중화’, 즉 비패권적 유교문화에의 지향, 구체적으로 유교의 ‘왕도’, ‘의리’, ‘예제와 인륜’이라는 핵심 가치의 계승과 실천 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읽어내려는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대보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대보단을 당대의 ‘문화적 중화론’, 보편중화론, 왕도론, 주자학 정치론, 예치론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18세기 국왕의 왕권에 대한 욕망, 노론 지배층의 정권 유지 등 현실정치·정파적 이해관계와 엮어낸 설명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외적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을 개혁하고 재건하려는 노력과는 무관한,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어낸 주범이라는 인식은 도리어 더 강화되었다. 대보단 건립 320년이 된 오늘날, 대보단은 많은 연구자들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존재이다.

이 같은 대보단 인식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영조대 대보단이다.⁸⁾ 영조는 대보단이라는 장소에 두 명의 명 황제를 추가했다.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과 명 태조 홍무제가 그들이다. 숙종대 건립된 대보단의 이름에 있는 ‘報’자는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이다. 대명의리론=존주론의 맥락에 서지 않아도, 명 신종과 ‘은혜 갚음’은 바로 연결되고 이해가 쉽다. 그런데 추가된 두 명, 그 중에서도 명 태조 추가 향사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폭군이자 강력한 황제전제체제의 수립자로 알려진 명 태조 홍무제를 대보단에 올린 것은 숙종대 대보

7) 대표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관계』, 새문사, 2009;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계승범, 『정지된 시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허태호,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배우성, 『중화 - 사라진 문명의 기준』, 푸른역사.

8) 영조대 대보단의 의미를 다룬 주요 연구로 김호, 「영조의 대보단 증수와 명 삼황의 향사」, 『한국문화』 32, 2003; 이근호, 「英祖의 明太祖 이해와 皇壇并祀」,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이육,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 42, 2006; 계승범, 『정지된 시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등이 있다.

단의 맥락 즉 ‘은혜 갚음’에서 벗어난다고 보았고, 그 결과 ‘은혜 갚음’ 대신 다른 이유로 추가되었다는 설명에 힘이 실렸다.⁹⁾ 이로 인해 대보단 향사가 지속되었던 18~19세기 조선에서 공유된 중화 담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되지 않았다. 즉, 청이 주도하는 질서나 새로운 전환기적 위기 속에서도 조선이 내치와 외교상의 기초를 중화 문명론과 유교적 경세론의 차원에서 이어가려는 실천 담론이자 문명적 정체성 담론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명 ‘統’ 계승, 즉 허구적인 정통성 계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국내 정파간, 군신간의 정쟁용 담론으로 이해해보려는 방식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후자는 君臣共治의 오랜 정치 구조와 天理의 제약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탕평군주론과 얽히며 더욱 힘을 얻었다. 강력한 왕권 또는 국가 관료체제 강화를 기반으로 군주 중심의 개혁을 추구하려 했다는 설명이 쉽게 이해가 가는 반면, 조선이 계승하려 했다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보편문화 또는 문명론의 천명이 적극적 개혁이 필요했던 당시 조선 현실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전쟁에서 생존한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설득하고 그에 걸맞게 내실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야 했던 시기에 조선 정부는 왜 대보단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확장해야 했을까.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꼭 근대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조선의 역사적 시간을 멈추게 한 주범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영조대 대보단 증수에는 중국의 구원병 파견에 대한 감사를 넘어 건국기 조선의 내치와 외교 정책의 중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再造 조선 혹은 조선 重興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적극적 제도 개혁을 해나가려는 실천적 목적이 있었음을 새롭게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1749년의 사료로 되돌아가 명 태조를 포함한 삼황 并享을 왕권이나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 지었던 선행 연구들을 반박하고, 명 태조 향사로 확장된 영조대 대보단의 장소성을 새롭게 제시하려 한다.

9) 각주 (26) 참조.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 의종과 명 태조 추가 향사에 신하들의 논리와 병향을 고집하던 영조의 논리를 교차 검토하며 숙종대 대보단의 의미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병향된 세 황제의 제향 형식, 특히 제단의 배치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하여 하나의 단에 세 황제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제단 구조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려 한다. 셋째, 명 태조 향사의 명분을 재검토한다. 영조는 명 태조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대보단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大造’의 공덕을 제시했다. ‘기자’, ‘주무왕’, ‘조선후책봉’을 핵심어로 하는 조선 국호론을 재검토하여 영조가 제기한 大造論의 의미를 재론해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조가 명 태조를 추가 향사함으로써 조선 건국과 15세기 국가 체제의 의미를 재인식한 위에서, 18세기 조선의 내치와 외교의 방향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국정 운영과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넷째, 대보단 증수 이후 50년 동안의 대보단 운영을 검토해, 영조대 대보단의 장소성이 영조대 후반에도 명확하게 유지되면서 정조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1749년 대보단 증수 논의의 쟁점

1) 명 의종과 명 태조 추가 향사 논의의 추이

1749년 대보단 증수 논의는 『명사』 「조선전」을 읽은 홍문관 응교 황경원이 올린 글에서 출발했다.¹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이 1637년 정월에 명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명사』를 보니 의종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다며 명 의종에 대한 추가 향사를 주장한 것이다. 영조는 즉시 홍문관에 소장된 『명사』를 가져와 해당 부분을 읽었다.¹¹⁾ 숙종 때 대보

10) 대보단에 명 의종을 추가하게 된 내력의 서술은 김호, 「영조의 대보단 증수와 명 삼황의 향사」, 『한국문화』 32, 2003, 183~186쪽을 참조했다.

11) 『明史』 「朝鮮傳」의 해당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승정 10년(1637, 인조15) 청 태종이 조선을 친히 정벌하여 맹약을 어기고 명나라를 도운 죄를 책망했고, 여러 성이 모두 무너졌다. 조선

단 설치와 관련된 기록들도 가져와 검토했다. 다음 날 영조는 명 의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구원하려 하였던 일을 거론하며 신종과 함께 제향하고자 했다. 영조와 달리 대신과 예조 당상은 증수와 추가 향사에 신중한 입장을 냈다. 영의정 金在魯는 숙종이 신종만을 위해 대보단을 지었던 점을 강조했고, 예조판서 金若魯도 두 황제 간 은혜의 경중이 있다고 했다.

영조는 먼저 김약로의 주장을 논파했다. 청나라 병사가 遼陽에 가득하고, 흘러들어온 적들이 中原에 이르렀는데도 바다 건너 멀리 군사를 보내 ‘屬國’을 구원하려 했던 점을 들어 의종의 은혜도 신종에 못지않다고 보았다.¹²⁾ 중국 襄州 지방 백성들이 천년이 지난 후까지 주나라 昭王을 기려 떠돌아다니는 작은 집에서 제사지낸 일까지 거론하며, 불과 백년이 지났을 뿐인데 의종 제향에 반대하는 논의를 은근히 비판했다.¹³⁾ 숙종이 신종만을 위해 대보단을 지었던 점을 강조하는 김재로의 주장은 더 간단한 논리로 논파했다. 숙종이 신종만을 향사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며, 만일 『명사』가 더 일찍 들어왔다면 의종까지 제향 대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영조는 주장했다.

자신의 앞날도 어찌될 줄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에서 조선에 보여준 명 황제의 의리라는 점에서 신종과 의종은 다를 바가 없음을 영조는 잘 설득했다. 명 황제에 대한 제향이 아니라 명 황제가 보여준 대의에 대한 제향을 표방했던 대보단에 의종을 추가 향사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정 과정도 순조로웠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보단 증수와 의종 합사가 결정된 지 20여 일이 지나는데, 새로 증수한 제단 규모나 제단 주변 시설물 건축에 대한 중요 사항이 모두 결정되었다. 황단 제향 의결의 세부 사항 확정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영조는 3월 23일 제향의결

에서 위급함을 알려와 總兵 陳洪範에게 수군을 뽑아 가 돕도록 했다. ② 3월에 진흥범에 관군을 이끌고 바다로 출동했다고 상주하였다. ③ 며칠 뒤 山東巡撫 顏繼祖가 강화 함락, 세자가 붙잡힌 일, 조선 국왕의 항복에 대해 알리고, 진흥범 등 진신에게 조칙을 내려 조선 대신 피도를 지키도록 하자고 아뢰었다. 황제는 안계조가 진흥범과 서로 협력해 (조선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明史』, 朝鮮傳, 崇禎 10년)

12) 이 屬國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주 (47) 참조.

13) 주 소왕을 기리는 한 칸 모옥에서의 제향 이야기는 화양동 만동묘 제향 의의를 강조할 때마다 늘어나는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천년이 지난 후에도 은혜와 공덕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를 칭송한 것이다.

을 준비하던 중, 명 태조 향사 논의를 제기했다. 자리에 있던 신료 중에 좌참찬 元景夏, 공조판서 趙觀彬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다. 신시(申時:오후 3~5시)에 시작된 논의는 끝을 맺지 못했고, 일단 영조는 모임을 파했다.

2경 3점, 이미 밤이 깊어졌을 때 영조는 영의정 이하 여러 신하들을 다시 소집했다. 그 사이에 영조는 두 종류의 글을 준비시켰다. 하나는 숙종이 沈廷輔에게 명해 언문으로 번역하게 한 『皇明英烈傳』에 붙인 어제이다.¹⁴⁾ 또 하나는 당시 찬술하고 있던 <大報壇誌>이다. 아마도 대보단 건립 사실을 기록한 책인 『皇壇志』¹⁵⁾ 듯 하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응해 신료들이 모였을 때, 영조는 창경궁 集瑞門에 앉았고, 불빛이 휘황하게 밝혀진 涵仁亭 마당에는 신하들이 앉았다.¹⁶⁾ 이 자리에서 영조는 숙종의 어제시까지 공개하며 명 태조 향사를 결정지었다. 황경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의종 병향 논의 때와 달리, 논의의 전 과정이 영조가 신료들의 반대를 뚫고 달려 나가는 형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촛불이 밝혀진 한 밤중에 선왕인 숙종을 소환하며 내려진 결정 방식은 사도세자 사안 등 어려운 결정 때 영조가 보였던 기묘한 행동들과 오버랩되며 여러 해석을 낳았다.

선행 연구들은 영조가 무리하게 명 태조를 대보단 제단에 올린 것에 주목했고, 영조대 대보단 제향의 의미를 조선 왕실이 명을 계승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조선 왕실이 명을 계승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명을 계승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주로 신료들이 주도하던 대명이리론을 국왕이 주도할 뿐 아니라 명 황실의 끊어진 제사를 조선 왕실이 이어나간다는 차원이 강조되면서, 명나라 ‘統[정통, 치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영조대 대보단 의미 변질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이다.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

14) 『황명영렬전』은 명 태조 주원장의 창업을 그린 중국 역사소설이다. 현재 장서각에 『대명영렬전』이라는 이름의 총 8권 8책으로 구성된 낙선재본 인쇄본이 전한다(『대명영렬전』(K4-6798)). 이 장서각 『대명영렬전』이 숙종의 명을 받고 沈廷輔가 언해한 언서로 추정되나, 확인이 더 필요하다. 영조가 가져오도록 한 것은 이 십정보의 언해본 영렬전에 붙인 숙종의 어제이다.

15) 1800년(정조24)에 편찬된 『尊周彙編』은 총 15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단지」는 권8에 수록되어 있다. (『존주회편』(奎5776))

16) 『승정원일기』 1041책, 영조 25년 3월 23일 신미.

는 영조가 명의 마지막 황제와 첫 번째 황제를 넣어 삼황을 제사한 일의 목표가 명 의리에 대한 감사와 기념을 넘어 명의 ‘통’을 계승하려던 것이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이 논쟁의 결과물로써 증수된 제단과 제향의례의 형식은 어떠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명 의리를 기억하는 제단인가, 명 황실을 계승하는 제단인가.

미국 한국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였던 김자연의 글이 수년 전 번역 소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영조대 대보단 해석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그는 영조대 대보단이 감사의 제단에서 달라졌다고 해석하였다.¹⁷⁾ “대보단을 축조하는 목적은 만력제가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낸 사실에 대한 조선인의 감사를 의례화하는 것이었다”고 해놓고도, 대보단 제단 설계와 의주에 모두 (명나라가) 先祖에 해당하는가 하는 함축적인 고민이 담겨졌다고 보았다. 숙종대 대보단에는 명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졌을 뿐 명시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서 그는, 숙종과 달리 영조는 조선 왕실의 역할을 명의 상징적 후계자로 설정하고자 했으며, 그 의미는 조정 사대부들에게 “왕실이 명의 역할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왕실의 위신을 세우려던 것이었다고 보았다. 신권과 대척점에 있는 왕권 강화를 염려한 관료들의 반대에 맞서 영조는 책략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했으며, 먼저 의종 배향을 추진해 증수를 합리화한 후 명 태조 제향을 제시했던 것도 그러한 책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명 태조 향사 제안이 통하지 않자 숙종의 권위를 빌어 이를 관철시켰다고도 했다.¹⁸⁾

이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조선의 명의 계승’에서 ‘계승’이라는 단어를, 명 역할의 계승 더 정확하게는 치통의 계승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조의 명 태조 향사 제안에 반대하며 했던 신료들의 주장을

17) 김자연 지음, 김백철 김기연 옮김, 『왕이라는 유산』, 70~71쪽.

18) 이러한 논지는 계승법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계승법, 2011,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117~119쪽.)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대보단 제례는 군사 원조에 대한 것이다. 왕이 주장한 홍무제의 관대함에 보답하는 방식은 **부모나 선조를 대하는 행동으로는 적절** 하지만, 제왕을 대하는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⁹⁾ 즉 대보단에 홍무제를 제향하는 것은 홍무제를 부모나 선조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신하들이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명나라의 향사가 이미 끊어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조선이 명을 계승해 제향을 지내는 일을 밀어붙였다고 보았다.

분명히 1749년 3월 23일 연석에서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보단 제사가 부모나 선조를 제사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료들은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영조 역시 명 황제들을 부모나 선조처럼 제사지낼 생각은 없었다. 찬반 논의의 주요 쟁점은 “대보단은 문자 그대로 ‘大報’의 제단인데, 과연 태조에게 대보할 의리가 있느냐”였다. 반대하는 이들은 신종, 의종과 달리 태조 고황제에게는 ‘대보’의 의리가 없다고 보았다. 찬성과였던 趙觀彬도 신통치 않은 논리를 펼쳤다. 태조 고황제가 신종과 의종의 ‘出自’, 쉽게 말해 선조이기 때문에 제향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 대보할 의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태조는 황조의 시작이고 의종은 황조의 마지막이며, 신종은 중간으로 우리나라에 큰 은혜가 있으니 세 황제를 함께 제향한다면 尊周의 의리에 더욱 광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명 황실 제사를 잇는 것처럼 변질될까 염려하는 이들을 자극했다.²⁰⁾

홍문관 교리 金善行은 조관빈의 입장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초에 명나라가 멸망해서 ‘血祭’를 지내려던 것이라면 태조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이 맞지만, 숙종 때에 대보단을 설치한 것은 명나라의 끊어진 제사를 이으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선행이 굳이 이 명나라의 끊어진 제사를 잇는 일에 ‘혈제’라는 말을 쓴 것도 명 황실 자손들이 행해야 할 일이지 다른 나라인 조선에서 행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대보단을 설치한 것이나 의종을 향사하려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19) 김자연, 위의 책, 72~73쪽.

20)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감사이고, 이를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인데, 태조 고황제는 ‘대보’의 뜻에 어긋난다고 여겼다. ‘혈제’, 끊어진 제사를 잇는 것은 안되며, 대보단 단제에 추가하려면 ‘대보’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¹⁾

내가 잠이 안 오는 날 밤에 고요히 생각해보니 황단에 단지 두 황제만 제향을 받드는 것에 두렵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神宗의 혼령이 장차 어떠하다고 하겠는가? 中州가 이적의 판국으로 변하였고 예의가 靑丘에만 유독 남아 있으니, 이는 바로 뜻 있는 선비가 통탄하며 울어야 할 처지이다. 세 황제를 한 제단에 제사지내는 것이 사체에 합당한 듯한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고황제가 朝鮮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의 국호를 내렸으니 그 은혜와 분의를 어찌 차마 잊어버리겠는가?²²⁾

고황제가 朝鮮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의 국호를 내렸으니 그 은혜와 분의를 어찌 차마 잊어버리겠는가?²³⁾

箕聖의 朝鮮이란 칭호를 어떻게 준 것인데, 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⁴⁾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영조는 한 구석에 치우쳐 있는 나라에 국호를 주었으니 ‘대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 태조 향사는 이른바 ‘혈제’가 아니며, 국호를 준 의리에 ‘대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조는, “皇朝에香火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세 황제를 제단에 향사하려는 것”이며 “혹시라도 重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찌 다시 제사지내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였다.²⁵⁾ 영조가 말했던 “대보의 의리가 있다”라는 점은 넘어가고

21)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22)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23일(신미)

23)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23일(신미)

24)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23일(신미)

25)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이 덧붙인 구절을 가져와, 많은 연구들이 영조가 명나라의 끊어진 제사를 지 내려는 차원에서 대보단에 명 태조를 향사했다고 해석했다. 영조대 대보단은 감사의 제단에서 명 황실을 잇는 계승의식을 표방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실제 논의에서 영조는 명 황실을 잇는 차원에서의 계승을 말하지 않았다.²⁷⁾ 영조의 일관된 입장은, 명 태조가 ‘大造’해주었기 때문에 ‘대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명이 국호를 준 일의 의의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대보’의 제단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⁸⁾

조관빈과 함께 찬성의 입장에 섰던 원경하의 견해 역시 영조와 같았다. 명 태조에게 대보의 의리가 있으며, 그보다 앞서 조선 태조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실천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옛날 우리 태조 대왕께서 위화도에서 回軍하여 제후의 법도를 닦았는데, 태조 고향제께서 특별히 朝鮮이라는 국호와 冕服을 내리셨습니다. 조선은 곧 箕子의 옛 칭호입니다. 이 칭호를 주신 것이 어찌 백세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정신 宋時烈은 위화도에서 회군한 공으로 태조의 휘호를 올려 줄 것을 청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또 고향제를 함께 제사하는 예를 거행한다면 이는 전하께서 聖祖와 聖考의 志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²⁹⁾

삼황의 제향이 결정된 후에 영조가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26) 김자연, 위의 책, 72~73쪽; 김호, 앞의 논문, 2003, 194쪽; 이욱,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 42, 2006, 150쪽;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128~129쪽; 계승범, 『정지된 시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111~121쪽.

27) 영조의 논리는 공자가 주례 체계가 무너진 시대에 ‘예를 보존하는’ 마음으로 『춘추』를 쓰며 삼대의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하려 했던 것과 비슷하다. 혹시라도 명이 중흥한다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영조의 주장은 주나라가 중흥한다면 공자 역시 구차하게 예를 보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명료하게 이해된다.

28) 명 태조를 제향해 강력한 군주상에 대한 지향을 표명하고, 엄격한 군신관계를 확립하는 명분을 획득하고자 했다는 연구도 있으나, 적어도 대보단 논의 속에서는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근호, 「英祖의 明太祖 이해와 皇壇并祀」,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29)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23일(신미)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죄주는 것도 『春秋』를 통해서이며 나를 아는 것도 『춘추』를 통해서이다.’ 하였다. 나 또한 나를 안다거나 나를 참람하다고 하는 것 모두가 거사에 있다고 여긴다. 지금 중국에서 명 태조를 역대 제왕의 묘당에서 제사를 받들었으나 오르내리시는 영혼이 즐거이 흠향하겠는가? 오늘의 壇祀로 皇明의 이미 끊어진 香火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마지막 구절인 황명의 이미 끊어졌던 향화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명이 사라졌지만, 대보단에서의 제향의례를 통해 삼황이 보여준 대의를 기념하고 그 뜻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부분에서 영조가 공자와 『춘추』를 언급한 대목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통해 尊周大義-주 천하와 주 시스템 [周禮]이 무너진 후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고 자기 시대와 미래에 이를 구현하려는 실천 의지-를 강조했던 것처럼, 조선은 대보단을 통해 명의 대의를 기억하고 그 대의에 입각한 정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3. 증수된 제단과 제향의 형식: ‘大造’와 ‘再造’의 공덕을 기념하는 제단

영조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제향하려 했음은 실제 증수된 제단과 제향 형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삼황 향사 논의에 앞서 황경원의 제안에 의해 대보단 증수가 결정되었을 때, 증축된 제단에 신종과 의종을 어떻게 제향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³¹⁾ 며칠 후 대보단 병향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원경하는 명나라 제도를 참조해 제향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³²⁾ 그 첫머리에서 대보단 제단 형식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 대보단은 하

30)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3월 23일(신미)

31) 김호, 앞의 논문, 2003, 191~192쪽.

32) 원경하는 이후 3월 23일 하루 종일 이어진 논의 때에도 명 태조의 ‘大造’ 의리를 내세워 병향에 찬성했다.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늘과 같은 깊은 은혜와 성대한 덕에 감사해 제사를 올리는 것이며, 이 때문에 원구단과 교사 제도를 모방해 壇에서 제사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大報라는 이름 역시 명나라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장소인 大報祀에서 유래한 것이었다.³³⁾ 이어서 원정하는 명나라에서 태조와 태종을 원구단과 대보사에 배향한 예를 참조해 의종과 신종을 昭穆의 제도로써 제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목제도는 宗廟나 原廟 안에서 承襲한 자손들이 조상을 기념하는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기준은 공덕이 아니라 가족 안 조-부-자-손 등의 항렬이었다.

영의정 김재로는 이에 반대했다. 그는 ① 1704년 皇壇의 이름을 대보단으로 지어올릴 때 대제학 宋相琦가 신종황제의 제사는 하늘같이 큰 은덕을 기리는 것이므로 제천의 이름을 써도 무방하다고 한 바 있지만, 그 당시에도 제천의 예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던 일, ② 명 가정 연간에 夏言이 祭天에 兩祖를 함께 제사할 수 없다고 하였던 일, ③ 가정 10년에 七廟의 소목제도를 회복할 때에 同堂異室 제도를 써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가 가정 24년에 다시 동당이실 제도를 회복하여 모두 남향하도록 한 일 등을 거론했다.³⁴⁾

①의 논지는 바로 황단 제사와 교천 제사를 혼용하는 일에 대한 반박이다. 대보단은 하늘같은 큰 은덕을 기리는 제단이며, 그 의리를 기념하기 위해 원구단과 교사제도를 모방할 수 있지만, 원구단과 교사 제도의 일부를 모방한 것과 교천의 예를 바로 사용한 것은 다르다고 못박았다. ②와 ③을 통해서는 소목제도에 반대하고 同堂異室 제도를 제안했다. 공로를 기리는 태묘 제사에서 소목 대신 동당이실의 제도를 써서 각각의 공로를 기리는 일을 외제화한 것처럼 대보단에서도 신종과 의종을 같은 반열에서 제사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대보단에서 제향하는 것은 신종과 의종이 실천한 ‘대의’이지, 조선 관계에 있는 신종과 의종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로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33)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1일(기사)

34)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1일(기사)

神宗 황제의 제사는 바로 하늘[天]을 제사하는 것이고, 毅宗 황제의 제사도 역시 하늘을 제사지내는 것이므로, 천자를 하늘에 배향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찌 한 임금만 높이고 한 임금은 억제할 수 있는가.³⁵⁾

김재로는 ‘하늘을 제사하는 것’이라는 말로써 제향의 대상이 신종과 의종이 실천한 ‘대의’, 큰 의리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신료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영조는 김재로가 올린 의견이 중요하고 자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했다. 영조 역시 대보단 제향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3일 오전 영조는 제단의 형식을 결정했는데, 제단을 함께 하지만 자리를 달리하는 형식, 즉 同堂異室의 제도로써 신종과 의종을 병향하기로 결정했다.³⁶⁾

이후 명 태조까지 향사하기로 했을 때, 제향 형식은 바뀌었을까. 대보단 제단은 명 황실을 대신하여 제향하는 장소가 아니었고, 명 태조와 명 신종·명 의종 세 황제가 조선에 보여준 큰 의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조선의 제향 장소였다. 최종적으로 제향 형식은 김재로가 원경하가 이미 언급했던 金滕三壇의 제도를 재 현의하여 결정되었다. 금등 삼단 제도는 주나라 周公이 목숨이 위태롭게 된 주 무왕을 대신해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늘에 빌 때 썼던 제도이다. 이 때 주 무왕의 선조인 太王과 王季, 文王을 각각 다른 단에 모셔 제사를 올렸던 것을 참조한 것이다. 세 제단을 각각 만들게 되면, 중수 공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서, 영조가 직접 壇圖를 그려서 내려주었다. 그 제도는 제단은 하나로 만들고(<그림 1> 참조), 그 제단 위에 각각 세 황제의 자리를 마련해 세 단의 의미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단의 왼쪽부터 명 태조, 명 신종, 명 의종 자리가 각각 마련되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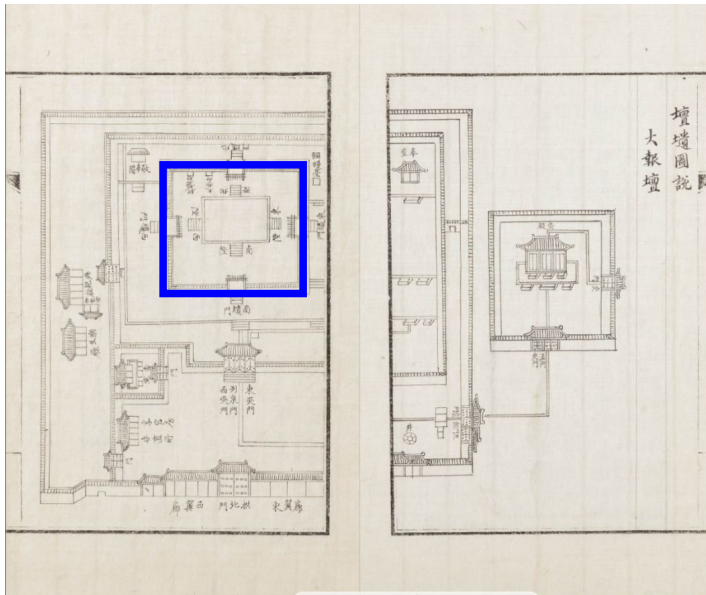
35)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1일(기사)

36)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37) 김호, 앞의 논문, 2003, 195쪽; 『승정원일기』 1041책, 영조 25년 3월 23일 신미 23/23 “在魯曰 若用皇明同堂異室之制 則太祖位在中 神宗·毅宗位 當在分列左右矣. 若用金滕三壇之制 則三皇當各壇矣. 景夏曰 太祖在中 神·毅兩皇分列左右 卽皇明太廟之制 三壇祀三皇 卽周公金滕之禮. 二者俱有所據 大臣所達 允合禮制矣. 上曰 金滕云何? 景夏曰 三壇同壇 爲壇於南方 周公秉珪 告太王·王季·文王矣. 上曰 太王爲首矣. 尙魯曰 壇制有異於廟制 不必從皇明居中分

종묘 제사의 형식인 동당이실 제도까지도 포함으로써 대보단 제향이 명 황실을 잇고 계승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점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은혜에 대보하는, 대의를 기념하는 제단이라는 의미는 영조대에 편찬된 『皇壇志』의 첫머리에 분명하다.

大報의 뜻은 禮記 郊特牲에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을 취하여 제단의 이름을 삼은 것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교사의 예로써 드높여 보답하는 의의를 붙이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천조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늘처럼 끝이 없다. 지금에 하늘의 이름을 빌어서 명의 세 황제를 제사하는 것이 비록 예에 없는 일이지만 의는 은혜로부터 일으켰으니 이 예는 마땅한 것이다.³⁸⁾



〈그림 1〉 삼황을 제향하는 하나의 단 (『尊周彙編』 卷8, 「皇壇志」, 壇圖說)

左右之制矣. 設三壇祀三皇 豈不儼然乎? (중략) 上親寫壇圖下之 其制以一壇作三壇 文秀受焉. 景夏曰 壇制若依圖爲之 則雖是一壇 而三壇之制也 實合於周公之三壇矣.”

38) 『尊周彙編』(奎3358) 卷8, 「皇壇志」, 志1, “大報之義 具於小戴記郊特牲 取其語爲壇號者 以郊祀之禮而寓崇報之意也. 我之蒙天朝之恩 與天無極 於是乎假事天之名 以祀我天朝三皇帝 雖於禮無之 義由恩起則斯禮也宜哉”

4. 명 태조 향사로써 확장된 대보단의 의미

이제 다시 1749년 3월 23일 밤으로 돌아가 왜 영조는 그 시기에 명 태조를 꼭 향사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영조는 涵仁亭 마당에 모인 신료들에게, 숙종이 명 태조 건국의 과정을 그려낸 소설인 『英烈傳』을 읽고 쓴 어제시를 제시했다. 이 숙종의 어제시에는 태조와 의종에게도 대보할 만한 의리가 있다는 해석이 담겨져 있었다. 그 셋째 수는 “고황제가 우리에게 조선 국호를 내려 주셨네. 임진년 참담할 때 누가 再造시켰던가. 제후의 법도 삼가 지킨 지 삼백 년, 하늘과 같은 성덕을 어찌 다 갚으리.”였고,³⁹⁾ 넷째 수는 “외로운 성이 적군에 포위되었던 해를 어찌 차마 말하랴? 이제 다시 천자에게 조회하지 못하였네. 슬프다. 갑신년의 周甲이 벌써 돌아오는데, 고국엔 향사 받들 사람이 전혀 없구나.”⁴⁰⁾였다.

이 숙종의 시에는 명 태조, 명 신종의 의리가 모두 담겨져 있었다. 먼저 셋째 수의 “고황제가 우리에게 조선 국호를 내려 주셨네”라는 대목은 태조가 ‘朝鮮’이라는 국호를 내려준 의리를 지적한 것이고, “임진년 참담할 때 누가 재조시켰던가”는 신종이 1592년, 임진년에 재조한 은혜를 특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報] 한다고 했다. 넷째 수의 “외로운 성이 적군에 포위되었던 해”는 1644년 결국 명이 멸망한 해를 지칭하며, 이미 망해 옛 나라가 된 명나라에 변두[享祀]를 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명의 향화가 끊어졌음, 즉 명의 멸망을 안타까워했던 영조의 언급과 똑같다. 영조는 숙종의 어제 가운데 ‘보’자는 대보의 뜻이고, 변두는 향사의 뜻이라며, 숙종이 이미 태조의 대보에 대해서도 향사할 뜻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료들과의 논쟁 자리에서 거듭 명 태조에게도 대보의 의리가 있다고 강조했었지만, 숙종 어제시를 통해 이것이 숙종의 뜻이기도 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자신의 논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어제시 뿐 아니라 숙종의 대보단 제향을 결정하는 전교 속에서도

39)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40) 『영조실록』 권69, 25년 3월 23일(신미)

명 태조가 언급되었다.

우리나라는 태조대왕이 나라를 세우던 처음에 大明의 태조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주었고, 열성조가 계승하여 至誠으로 事大하였다. 임진년 변란에 선조 임금의 의주까지 피난하자, 신종황제가 천하의 힘을 다하여 동쪽으로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여 우리 동방을 再造하였다. 작은 벌레, 하찮은 풀뿌리까지 대명이 도와 있게 되었으니, 그 어진 마음과 깊은 은혜는 백세가 지나도 잊기 어려운 것이다.⁴¹⁾

숙종은 임진년 변란에 도움을 주었던 신종의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명 태조가 주었다는 것과 조선의 300년 至誠事大 외교정책을 언급했다. 조선의 지성사대 외교정책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한 위계적 또는 계서적 국제질서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최근 조선의 사대 예제가 원 제국과 고려 사이의 외교 예제에서 기원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외교 수사를 쓰지만 뒤에서는 외국에 대해서도 무한한 황제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두 얼굴의 태조 洪武帝를 대하며 조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황제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외교예제를 마련했다는 치밀한 실증 연구가 이어지며, 위의 이해방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우선 당시 원을 대신해 부상하던 명의 세계 정치 모델과 이와 연관된 대고려, 대조선 정책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단지 생존을 위해 약소국 외교를 해왔다는 해석을 넘어 조선이 당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실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금 전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 번에 풀 수 없는 너무 큰 과제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조선 건국 전후의 조선-명 관계와 명 태조의 역할 중, 조선에 국호를 내려준 일과 책봉 의례의 의미로 한정해, 조선시대 이른바 正傳化된 스토리를 따라 가며

41) 『숙종실록』 권39, 30년 1월 10일(경술)

살펴보겠다.

조선이 칭호를 묻는 명의 질문에 대응해 두 개의 국호를 올리고, 명 태조가 그 중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해준 일은 실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鄭道傳은 이 일을 새 나라의 헌정적 규범을 논의한 『朝鮮經國典』의 두 번째 항목에 상세하게 기재했다. 그 대목을 아래 인용한다.

① 오직 箕子가 周 武王에게 受命하여 朝鮮侯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가 명하기를 “오직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에 근본해 있고 하늘을 법 반아서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 하였다. 주 무왕이 기자에게 명한 것처럼, (명 천자가) 전하에게 명하였다. 이름이 바로니 말이 순조롭게 된 것이다. ② 기자는 무왕에게 洪範을 말해 주었고, 그 뜻을 미루어서 八條의 가르침을 지어 나라에 실행하였다. 政教로 教化되고 풍속이 매우 아름다워졌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천하 후세에 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이었으니 기자의 善政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③ 아! 명 천자의 덕도 주 무왕에 비교하여 부끄럽지 않으니, 전하의 덕 또한 어찌 기자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장차 洪범의 學과 팔조의 가르침 [教]이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⁴²⁾

위 이야기 앞에는 책봉 없이 건국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도전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오직 기자만이 “주 무왕에게 수명하여 조선후에 봉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⁴³⁾ 수명책봉과 자주독립을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정도전의 주장을 중국의 승인[책봉]이 있어야만 국가의 정통성이 생긴다는 주장이라 생각하고, 이를 ‘사대’ 조선, 나아가 ‘사대주의’ 조선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조선이라는 국호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

42) 鄭道傳, 『三峯集』 권13, 「朝鮮經國典」, 國號.

43) 한반도에 예의와 교화 정치를 도입한 문화의 창시자이자 주 무왕의 책봉을 받은 사대의 상징이라는 이중적 기자인식에 대해서는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 3, 1982 참조.

원명교체기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시야에 넣고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새 나라 조선은 기자와 단군이 각각 상징하는 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명나라의 관계를 고려해 기자만을 부각하고 홍무제를 주무왕에 비유해 사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려 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⁴⁴⁾ 결국 ①에서 정도전이 강조했던 ‘기자의 조선후 책봉’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약소국의 현실 외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일이 없다.⁴⁵⁾ 과연 위 인용문은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

①에서 정도전은 명과 조선의 관계를 ‘주 무왕’과 ‘기자’의 관계로 유비했는데, ‘주 무왕’과 ‘기자’보다 더 강조한 것은 ‘조선후 책봉’이다. 기자를 ‘조선후’로 책봉했다는 부분은 ‘受周武之命’이라고 되어 있다. 새로 천명을 받은 주 무왕에게서 기자는 受命하여 ‘조선후’가 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자는殷나라 왕실의 왕족이었다. 은나라에게서 天命이 떠나 주가 건국된 후 기자의 뛰어난 덕을 흠모했던 주 무왕은 주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청했다. ②에서 언급했듯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대신 洪範의 가르침을 주 무왕에게 배운 후 동쪽으로 떠났다. 은나라 왕족 기자는 주 무왕의 신하가 되기를 거절했지만, 천하를 다스릴 중요한 방법을 전해주었던 것이다.⁴⁶⁾ 주 무왕은 신하로 삼는 대신 기자를 ‘朝鮮侯’, 즉 諸侯로 책봉해 특별한 천자-제후 관계를 맺었다.⁴⁷⁾

44) 허태용, 「조선왕조의 건국과 국호 문제」, 『한국사연구』 61, 2015, 164쪽. 최중석도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국호 문제를 다루면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서 유래한 독자 공간과 문명 중화 추구라는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보았다. (최중석,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 보편의 추구」, 『한국사연구』 180, 2018, 94~103쪽)

45) 안외순은 조선 건국을 패권/군사/경제력에서 공존/평화/문화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며, 기자 조선에서 유래한 조선이라는 국호 문제를 다루었다. 기자와 연관된 국호의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조선후 책봉’ 문제와 연관된 조선의 천하관계 인식은 다루지 않았다. (안외순, 「조선 전기 중화주의와 내치·외교 관계」, 『동방학』 31, 2014, 54~57쪽)

46)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不臣]는 인식은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이었다. (한영우, 앞의 글, 1982, 37~39쪽) 기자가 책봉받았으나 신하가 되지 않았다는 『사기』의 기록은 고려 말 이색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224~225쪽)

47) 고대사 연구자들은 고조선을 ‘책봉’과 연결짓는 이 사료를 조선의 사대주의적 관점이 투영된 왜곡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일단 고조선 때의 실상을 따지지 않는다. 이 글의 관심은 정도전 등 조선 건국 주도세력이 새 나라를 책봉국이었던 기자조선 전통과 연결지으려 했다는 사실과 이를 또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실천을 하고자 했던 조선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다.

이 책봉 받음을 현대적 의미에서 ‘屬國’이 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통적 국제질서에서 책봉 받은 조공국이 내치와 외교상의 自主權을 가진 나라였다는 해석은 이미 설득력을 얻고 있다.⁴⁸⁾ 문제는 조공-책봉의 형식 안에서 ‘전통적 주권’을 위협하는 질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13~14세기 고려-원[몽골]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⁴⁹⁾ 조공-책봉의 이른바 ‘禮的’ 질서는 주나라 천하체제 내 종주국[周]과 여러 국가들[封國, 復國, 邦國] 사이의 질서체계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후 역대 중국의 帝國을 표방한 나라들은 고대의 형식을 빌어 조공-책봉 의례로써 주변국들을 의제적 천하 내의 존재로 만들어 왔지만, 그 예제 속에 담겨있던 실질을 현재화할 수는 없었다. 책봉국은 천하를 책임질 역량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조공국들은 주-천하체계, 周禮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현실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책봉국의 상황을 엿보다가 조공-책봉 관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탈했다. 원 제국은 더욱 강력하게 현실의 무력적 위계 관계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책봉-조공 관계를 활용했고, 고려는 거의 백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포장지 안의 쓴 맛을 겪어내야 했다.⁵⁰⁾

이 시대를 살았던 정도전은 명-조선 관계를 이미 너털너털해진 현실의 책봉 관계와 다른 새로운 관계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책봉이라는 언어는 이미 오염되었다. 오염된 언어로 새로운 관계와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기는

48) 이 때 속국이 지배-복속 관계에 있는 복속국이 아니라 ‘내치-외교의 자주’라는 고유한 권리를 향유하는 ‘전통적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였다. (김봉진, 「‘조선_속국, 속방’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8권 1호, 2019, 96~97쪽) 또 ‘전통적 주권’은 불균등한 국력 차를 인정한 위에서 균, 평하게 세계 안에서의 책임을 분담하는 규범[사대의 예, 사소의 예]에 의해 운용되었다. (김봉진, 「사대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28~130쪽) 이와 같은 ‘전통적 주권’을 용인하는 평화주의적 제국질서에 대한 논의와 반론 등에 대한 연구사는 김형중,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56~85쪽 참조.

49) 원 황실과의 관계에 따라 고려 군주권 이하 권력 관계가 좌우되던 시기였으며, 몽골에 의한 고려 왕위의 교체[重祚]나 고려인 스스로 몽골 내지화를 주장하는 등[입성론] 전통적 주권이 크게 흔들렸다. (이명미, 앞의 책, 2016) 이 전통적 주권의 위기상황의 돌파가 조선 건국에 참여한 고려인들의 주된 문제의식임을 인식하고, 조선 건국과 15세기 국가 모델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50) 원대의 외교예제는 주대 천하질서의 외피를 쓰고 있을 뿐, 주대의 국가간 관계와 가장 동떨어져 있었다. 최근 15세기 조선의 제후국 예제를 원대 경험의 유제로 보는 연구가 많지만, 형식적 유사성 이면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선이 추구한 대외 관계 및 조선의 외교의례를 오독하게 될 것이라 본다.

어렵다. 그래서 정도전은 언어의 본래 의미가 살아있던 시대로 돌아갔다. 기자와 주 무왕은 ‘책봉’이라는 형식이 타국에 대한 강력한 ‘信任狀’으로 작동하며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만들어내던 시대 속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을 끌어와 현실의 명-조선 관계를 武力을 동원한 위계관계에서 雙務의인 협력관계로 바뀌놓았던 것이다.⁵¹⁾

이러한 내용이 단지 정도전과 같은 유교 지식인의 몽상이었을까. 아니면 명 태조 역시 이런 의미로 새 나라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추천했던 것일까. 실제 명 태조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恭愍王 이래 집요한 책봉 관계 요청 뿐 아니라 새 나라 국호 추천까지 요청받은 명 태조는, 조선이 내민 후보 중에서, 기자 이야기와 얽여 있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골랐다.⁵²⁾ ③에서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고른 일을 명 천자가 자신을 주 무왕으로 조선 왕을 기자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 것이라 보고, 기자 홍범의 정치가 조선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중국과 조선 지식인들에게 공동의 원천이었던 儒家經典 및 역사서 속 등장인물이기도 했다. “이 (조선이라는) 이름에 근본해 이를 잇고 하늘을 法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는 명 태조의 말을 정도전은 재차 강조했다. 이 말에는 ‘하늘을 법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인 기자 조선의 治法, 善政을 이어받을 나라로 새 조선을 정의하고 인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⁵³⁾ 이 이야기 속에서 기자는 안으로 홍범에 토대한

51) 종주국과 제후국을 복종적 군신관계로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구축된 자발적 협력관계로 보는 것은 자오팅양의 주나라 천하체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종주국과 제후국이 함께하는 주-천하체제 네트워크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지역 구조는 전체 구조의 복제판이고 모든 지역은 규모가 작은 완전한 시스템이다. 천하의 정치질서는 보편적으로 전이되고 각 나라는 독립적으로 자치를 한다. 종주국은 천하제도, 보편질서와 천하체제의 공동 이익 유지 등을 책임지고, 자치하는 제후국의 내부 문제는 각자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종주국이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를 조직하여 도와준다. ②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은 무한 개방성을 지닌다. ③ 천하 체제의 특징은 자발적인 협력이고, 그 정당성은 만민의 인정과 지지에서 나온다. 각 나라는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④ 모든 나라는 종주국을 대체하여 천하의 새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혁명은 천명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자오팅양, 김중섭 역,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 이음, 2022, 108~113쪽)

52) 『태조실록』 권2, 1년 11월 29일(병오); 『태조실록』 권3, 2년 3월 9일(갑인)

53) 『태조실록』 권3, 2년 2월 15일(경인). 명 태조가 이 말은 한 것은 홍무 25년 윤 12월 초9일이고, 이 날 예부 자문을 받았다. 태조는 교지를 통해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졌음을 알렸다.

선정을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주 무왕과 천자-제후의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조선’은 단지 여러 나라 이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안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밖으로 천자국을 포함한 세계[天下] 여러 나라와 협력할 역량을 인증하는 표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명과 조선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주고 받는 형식을 통해 주 무왕과 기자 관계와 같은 신뢰 위의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두 나라는 하늘을 법 받아 각자의 백성을 다스리고 후손을 길이 창성하게 할 것이었고, 외교 사절을 통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서로의 위기에 도움을 줄 것이었다. 명 태조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해, 정도전은 “이름이 좋기 때문에 말이 순조롭게 된 것”이라 했다.⁵⁴⁾ 그 이름을 내놓은 것은 물론 정도전과 같은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조선은 조선의 의지로 원-고려와 같은 무력적 책봉질서 대신 명-조선의 쌍무적 협력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명 역시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이라고 국호를 정해주었고, 두 나라가 기자와 주 무왕의 때의 관계를 맺어갈 것을 ‘약속’했다. 정도전은 조선의 헌정적 규범을 명시한 『조선경국전』에 이 ‘약속’을 자세히 소개하고 명문화했고, 이는 조선 정치가와 지식인들이 공유한 ‘사실’이 되었다.

다시 대보단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대보단을 증수할 때 영조는 명 태조가 국호를 내려준 것을 이유로 들어 대보단에 병향했다. 명 신종이 대규모 군대로 조선을 도운 것은 명 태조 때부터 조선과 명 사이에 특별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더 정확하게는 옛 주나라처럼 책봉 제후에게만 의무를 지우지 않고 직접 천하의 군대를 움직여 제후국을 도움으로써 천자의 의무를 다한 것은 명 신종이었다. 그렇지만 협력관계의 연원은 길었다. 조선이 바란대로 周代의 언어를 차용한 ‘책봉’은 명 태조의 결정이었고, 주나라식 ‘책봉’의 증거는 ‘조선’이라는 국호였다. 조선의 내치와 외치[외교]의 방향과 내용 역시 ‘조선’이라는 국호에 담겨져 있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통해 주대의 천하모형을 염두에 둔 조선의 통치 모델[내치]과 명-조선의

54)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이듬해 정도전은 하늘을 법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조선의 통치 방법을 담아낸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렸다. (『태조실록』 권5, 3년 5월 30일(무진))

국가간 협력 관계 모델[외치]이 확립된 것이며, 이것이 ‘大造’되었다는 언설의 진정한 의미였다. 조선은 300년 동안 성실하게 기자의 善政을 안으로 실행하고, 밖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적 평화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려 했다. 영조가 명 태조가 국호를 주었던 사실을 통해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명의 ‘大造’의 은혜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전통, 바꿔 말하면 조선의 주 모델 존중, 尊周의 역사이기도 했다.

명 태조를 향사함으로써 대보단은 한 때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 有明朝鮮, 즉 명-조선의 관계가 존재했던 시대의, 국가를 넘어선 신뢰와 협력을 기념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하늘을 법받아 仁義의 정치를 행하고, 대외적으로 천하의 일원으로서 인의의 국제정치에 동참하는 조선. 대보단은 그런 조선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상하는 공간이었다. 이미 명은 멸망하고 청이 중화를 자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청 제국의 무력적 질서에 순응하고 당연시하는 대신에, 안으로는 적극적인 제도 개혁으로 善政을 위한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도 청이나 일본 등 현재 존재하는 주변국들과 신뢰와 협력의 국가간 관계를 유지해 나가하고자 했다.⁵⁵⁾ 대보단은 과거 오랫동안 추구했던 조선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며 시대에 맞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⁵⁶⁾

55) 정조는 「사대예설」이라는 글에서 조선은 중국 바깥의 독립국이지만 국내 제후와 같은 신뢰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를 반영한 것이 조선의 사대예제라고 설명했다. 청이나 일본 등 믿을 수 없는 주변국들과 함께하는 시대이지만, 조선은 국조 전통의 사대예제를 잘 보존하며 공존과 협력의 국제관계를 지향했던 조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했다. 이와 같은 정조의 국조 전통에 대한 이해는 영조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지영, 「천하례: 대명의리와 정조의 <사대예설>」,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56) 대보단 증수가 이루어진 1749년은 영조가 『속대전』과 『속오례의』를 편찬하며 재조 조선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려던 시기이다. 두 전장서가 15세기에 마련된 조선의 내치 기조를 재확인하고 시대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었다. 증수 대보단에는 내치 기조와 연동된 조선의 대외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5. 중수 이후 대보단 운영과 장소성의 공고화

영조는 명이 망해 제사가 끊겼기 때문이 아니라 명 이후 천하에 제대로 된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옛 일이 되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의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창덕궁의 北苑 한 구석의 제단에서 명 삼황을 제향했다. 청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강대국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조선은 누구보다 신실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나라를 운영해나가야 했다. 청에 대해 조선은 명나라 때의 사대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훗날 정조는 청을 제대로 된 임금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명-조선의 사대례를 보존하는 차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저 北苑의 단, 즉 대보단이 있어 조선이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다고도 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음 영조와 세손 정조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764년(영조 40) 조강하는 자리에서 『맹자』를 강했는데, 세손을 시좌하도록 했다. 영조는 등문공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너는 소국을 다스리는 임금의 모범이 되고 싶으나,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모범이 되고 싶으나”를 물었다. 세손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모범이 되고 싶다”고 하자 영조는 그 뜻이 크다고 칭찬하고 史臣에게 기록해 두라고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영조는 “중국에서도 문물을 고증할 곳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杞나라와 송나라의 일을 고증할 수 있으니, 한 조각 마르고 정결한 땅이 바로 황단이다. 황하가 맑아지는 시기는 점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三壇은 만세를 지나도 길이 남을 것이다”라고 했다. 인용문에서 삼단은 세 제단으로 이루어진 대보단을 지칭한다. 기나라와 송나라에서 옛 하나라와 은나라를 기리는 제향을 올렸던 것처럼, 조선이 대보단을 통해 중화 문물의 정수, 주대의 천하관계와 治法을 기억하고 이어가려는 의지를 표방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자부한 것이다.⁵⁷⁾

대보단 중수 후 친제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한편 대보단과 그 부속 건물들

57) 『영조실록』 권103, 40년 3월 13일(갑자)

의 의의를 어제와 어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냈다. 동쪽에 새로 생긴 齋殿에는「皇壇齋殿小識」을 내려 재전 건립의 의의를 밝혔고, 조종문 밖에 있는 작은 돌다리에는 옛날 숙종이 지은 獅子橋라는 이름을 어필로 다시 써내려 돌에 새기도록 했다.⁵⁸⁾ 이름이 없던 남문에는 拱北門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었다. 1756년(영조 32)에는 황단에 보관된 승정 갑신년 皇曆을 보고 맨 끝장에 직접 記文을 썼다.⁵⁹⁾

대보단의 배향신을 추가로 정해 종향하고, 의절도 추가로 정비해 그 결과를 모아 황단의례도 작성하게 했다. 1746년(영조 22)에는 황단에 楊經理와 邢軍門을 배향한 바 있었는데,⁶⁰⁾ 1762년(영조 38)에 태조 고황제 신위에 武寧王 徐達, 명 신종 신위에 寧遠伯 李成樑을, 명 의종 신위에 范文貞을 종향하였다.⁶¹⁾ 1747년(영조 23)에는『속오례의』에 황단 관련 의주와 서례가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서례와 의주를 각각 한 책에 담아 2책의『황단의』2부를 작성하고, 한 부는 황단의 신실에다 간직하고 한 부는 강화도 史庫에 간직해 후대에 전하도록 했다. 이 책에는 이 경위를 적은 영조의 어제 서문이 들어가 있다.⁶²⁾ 1749년 삼황 향사가 이루어진 후 황단의절은 재편집되었고,⁶³⁾ 이 때 만들어진 책이『존주회편』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皇壇儀』이다.⁶⁴⁾

대보단 제향에 유생이나 병자호란 때 충절인들의 자손들을 참여시켜, 더 이상 복원의 감추어진 제단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 황단 증수 후 대학 유생들이 배종하여 제사지내기를 청하자, 영조는“首善의 땅[대학]에서 이와 같이 義起한 예를 행하고자 한다”며 칭찬하고, 공북문 밖에서 참제할 것을 허락했다.⁶⁵⁾ 1762년(영조 38)에는 황단에 친제할 때 三學士의 자손 및 五忠臣의 자손으로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제사에 참여하게 충절을 장려하는 뜻

58) 『영조실록』 권61, 21년 4월 2일(갑진)

59) 『영조실록』 권87, 32년 5월 15일(임오)

60) 『영조실록』 권63, 22년 3월 7일(계유)

61) 이 때의 종향 사실에 대해서는『皇壇從享儀軌』(奎14316) 참조.

62) 『영조실록』 권65, 23년 3월 2일(임진); 『皇壇儀』(奎14308)「御製皇壇儀序」

63) 『영조실록』 권69, 25년 4월 12일(기축)

64) 『영조실록』 권65, 23년 3월 29일(기미)

65) 『영조실록』 권69, 25년 4월 10일(정해)

을 보이도록 했다.⁶⁶⁾ 1770년(영조 46)에는 한창 편찬 중이던 『東國文獻備考』 「禮考」에 황단의 일을 기록하게 하면서 “천하 후세에 말할 명분이 있고, 천하에서 반드시 의롭게 여길 것이다”며 그 의의를 자부하기도 했다.⁶⁷⁾

궁궐 안 대보단 구역 밖에도 명과의 관계를 기억할 장소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1769년(영조45)에는 청나라의 조칙과 뒤섞여 보관되어 온 명에서 보내온 외교문서를 따로 분류해 보관하게 했다. 명나라의 칙문은 『風泉錄』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왔는데, 따로 한 책을 만들어 『追感皇恩編』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교서관에서 교정한 후 인출하게 했다.⁶⁸⁾ 바로 이 『추감황은편』의 가장 첫머리에 태조 2년(1393, 홍무26) 2월 15일 경인일에 국호를 받은 후 조선 국내에 내린 <太祖皇帝賜國號後頒教文>이 수록되어 있다. 완성된 책 1본은 동궐의 승문원 欽奉閣 내려 소장하게 했고, 1본은 경희궁 槐院[승문원]의 敬奉閣에 봉안했다.⁶⁹⁾ 명나라의 연호가 새겨진 마패 700여 개도 따로 상자를 개비하고 승문원 누각 위에 소장하게 했다.⁷⁰⁾

경희궁의 경봉각은 본래 흙봉각이었는데, 영조가 명칭을 고치고 어필로 써서 개관하게 하였다. 영조대 후반 영조의 거처가 경희궁이었기 때문에, 창덕궁의 대보단보다 경희궁의 경봉각은 보다 쉽게 명과 조선 사이의 대의를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훗날 정조는 이미 기능하지 않고 있어 퇴락한 괴원에 우뚝 서있는 경봉각과 흙봉각을 대보단 구역으로 옮겨 건립하도록 했는데, 명과 조선의 관계를 상징하는 기념 장소로서 대보단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⁷¹⁾ 다음은 경봉각을 옮겨짓게 하면서 내린 정조의 전교이다.

66) 『영조실록』 권99, 38년 1월 30일(갑자). 삼학사는 병자호란 때 척화신 洪翼漢·尹集·吳達濟이며, 오충신은 병자호란 때 항복한 일에 계속 반대하다 1642년(인조20)에 청에 잡혀간 申翊聖·許啓·李明漢·李敬輿이다.

67) 『영조실록』 권114, 46년 1월 23일(신축)

68) 『推感皇恩編』 2책은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 1종씩 소장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동훈, 『『추감황은편』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총서 해제 참조(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9922_00¬es=gyeongbu)

69) 『영조실록』 권113, 45년 12월 4일(임자)

70) 『영조실록』 권88, 32년 9월 5일(경오); 『영조실록』 권113, 45년 12월 11일(기미)

71) 『弘齋全書』 卷7, 詩, 謹題敬奉閣并小序

아침에 冽泉門 밖에 나가서 의식을 거행하고 아울러 경봉각의 새 터를 살펴보았다. 비록 베껴서 찍어낸 대본이긴 하나 皇壇 곁에 황조의 誥勅을 보관해 둔다면 구름무늬 책장이 찬란히 빛나, 지난날 성대했던 명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것 같을 것이니, 그 주변을 맴돌고 섬돌을 오르내릴 때의 심경이 과연 어떻겠는가. 洪武 25년 당시부터 빛나는 고척이 온 산하에 어리비치고 사신의 행차가 번갈아 왕래하여 우리나라를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여겼다. 우리 역대 임금들께서는 그 뜻을 받들고 계승하여 고척을 국보처럼 감싸고 선왕의 훈계처럼 높였다. 남한산성으로 임금이 임시 옮겨가 계실 때는 忠貞公 尹集과 文簡公 鄭蘊이 행재소에서 아뢰기를 ‘저들이 만약 황조의 고척과 인장을 요구할 경우 의리로써 맞선다면 저들은 필시 이해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께서 그 의견을 가상하게 여기셨으나 때가 위급하고 형편이 곤란하여 의리로써 맞서기는 어려웠다. 太王도 서울을 떠날 때 주옥 등 보물을 보전하지 못했으니, 이는 곧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이 가슴을 치고 한탄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만둘 줄 몰랐던 일이다.⁷²⁾

베껴서 찍어낸 책이기는 하지만, 홍무 25년 즉 1392년 조선 개국 당시의 誥勅과 조선의 사대 외교를 온전히 기념하는 기념물을 보관할 장소를 대보단 곁으로 옮겨지었던 것이다. 정조는 경봉각을 옮긴 후 지은 어제시에 붙인 서문에서 홍무 25년, 즉 1392년 명 태조가 보낸 고척중 “하늘을 채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후사를 번창하게 하라”라는 내용을 강조했다.⁷³⁾ 신종의 조칙 중에는 조선의 의견을 들어 『명회전』의 내용을 고치도록 한 조칙과 “군사를 내어 왜노를 평정하라”는 조칙을 강조했다. 명과 함께 하늘을 법받아 세계의 일부를 다스릴 나라 조선에 대한 인정, 외교적인 소통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위기에 원병으로 도왔던 실천들이 고스란히 담긴 문서들이었다. 이렇게 명 대의의 실상을 증명하는 기록물들이 대보단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 주변을 맴돌고 섬돌을 오르내릴 때, 즉 대보단 제향을 올릴 때 떠올리

72) 『정조실록』 권52, 정조 23년 7월 24일(경진)

73) 『弘齋全書』 卷7, 詩, 謹題敬奉閣_并小序 “自高皇帝洪武建元二十五年體天牧民永昌後嗣之詔至顯皇帝新修會典及出師平倭之詔”

는 것은 “지난 날 성대했던 명나라의 문화”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대함’은 문물적인 측면에서 변화하고 화려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치와 외치 방면에서 실천했던 수준높은 정치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이 그러한 공존적 협력관계의 논리로써 청을 설득한다면, 청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물론 당시 청은 힘으로 천하를 얻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고, 조선의 평화론이 설 자리는 없었다. 정조는 조선-명 외교의 흔적들을 모아 대보단 주변에 진열함으로써 영조대 확장된 대보단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었다. 경봉각을 옮겨 봉안하는 의식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삼학사, 曹漢英과 宋時烈의 봉사손도 제향에 참가하게 하여 조선의 대명의리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내려 노력했던 조선의 여러 선열들도 함께 기념하고자 했다.⁷⁴⁾ 영조와 정조가 이들 충의지사들을 소환하며 강조한 것이 그 자신의 왕권 강화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6. 맺음말

영조는 대보단에 명 태조를 추가 향사하고 조선 건국기의 일을 드러냄으로써, 명-조선이 함께 했던 周 천하체제 지향을 재확인하고, 내치와 외치의 차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18세기 조선 재조의 방향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듯 조선 왕조의 정체성과 연결되자, 대보단은 더 이상 은밀하게 감추어진 제단이 아니라 여러 재현물 속에서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대보단이 건립된 직후, 1750년대에 제작된 <도성도>에는 昌德宮과 昌慶宮이 하나의 궁궐로 묘사되어 있고 궁의 명칭은 창경궁으로만 기재되어 있

74) 경봉각을 옮겨짓는 공사는 1799년 7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정조는 직접 봉심하고 고칙을 봉안하였다. 누각은 황단 서쪽에 세워졌고, ‘경봉’, ‘흠봉’이라는 영조 어필 편액을 누각 안팎 문 위에 게시했다. 누각 안에 작은 장롱을 북쪽 벽에 놓고 『추감황은편』 2권, 명에서 보내준 인장을 찍은 공신교서 사본 1건, 태조 고황제의 어필 障子 1건, 宣宗章皇帝의 御製 어필 장자 하나, 毅宗烈皇帝의 어필과 御書 각 하나, 어필을 새긴 현판 두 개를 봉안하였다. (『정조실록』 권52, 23년 7월 25일(신사))

다.⁷⁵⁾ 궁궐 안에는 仁政殿, 明政殿, 春塘臺와 敦化門, 金虎門, 赤鳳門 등 문의 명칭이 그림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명정전 북쪽으로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개의 전각이 있고 그 너머로 뾰뾰한 숲이 보인다. 그 숲 너머 북원에 있는 대보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제단에 불과했으나, 그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고 드러나게 묘사되었다. 대보단 옆의 齋殿 또한 궁궐 내 여타 전각만큼이나 크게 그려졌다. <도성도>가 영조대 당시 경영한 수도 한양의 진면목을 자랑하기 위한 자료임을 감안하면, 비중있게, 드러나게 그려진 대보단을 통해 당시인들이 수도 한양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내세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묘사는 정조대 <도성도>에서도 마찬가지다.⁷⁶⁾

1799년 경봉각을 옮겨 봉안한 후 정조가 지은 어제시에서 대보단은 “당나라 요 임금과 나란히 섬에 산하가 공고하고[唐堯并立山河鞏], 주나라 후직이 거둑 빛남에 일월처럼 드높아라[周稷重光日月高]”로 표현되었다. 이 시에서 정조는 대보단을 요임금과 후직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장소라고 읽어들였다. 대보단의 삼황은 唐堯와 주 후직의 정치를 잇는 존재였다. 조선이 대보단을 세워 이를 잊지 않고 이어갈 때, 즉 질치부심해서 자강불식할 때 산하가 공고하고, 해와 달처럼 드높이 계속 빛날 수 있을 것이었다. 이어지는 시구에서는 “별빛이 감도는 북원의 새로 지은 경봉각 바라보니[昭回北苑瞻新構], 우리 동방에 백세토록 전할 적도를 받들었구나[百世吾東奉赤刀]”라고 하였다. 정조에게 대보단 곁에 세워진 경봉각에 담겨진 명 유물도 단지 옛 왕조의 유물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의 의지로 원하는 정치공동체를 꾸려나갈 권리, 주권을 억압하는 불의한 적에 대항할 ‘赤刀’였다.⁷⁷⁾

숙종대 건립되고, 영조대 조선의 문명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거듭난 대보단은 당시인들의 여러 재현물 속에 존재를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전혀 다른 질서와 대면했고, 나라를 잃은 후 시련을 겪으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한

75) 『輿地圖』(古4709-78), 1帖, 「都城圖」

76) 『都城圖』(古軸4709-3)

77) 『弘齋全書』卷7, 詩, 謹題敬奉閣并小序

때 자랑스러운 조선의 상징이었던 대보단의 의미는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지금 옛 조선의 궁궐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대보단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창덕궁의 북쪽 어두운 숲 속에서, 한 때 조선시대인들의 보편적 삶의 지향과 가치, 그 실천의 역사를 상징했던 대보단은, 새롭게 기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弘齋全書』

『大報壇增修所儀軌』

『皇壇從享儀軌』

『推感皇恩編』

『尊周彙編』(奎3358)

鄭道傳, 『三峯集』

계승범, 『정지된 시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관계』, 새문사, 2009.

김봉진, 『사대의 재해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_____, 『조선_속국, 속방』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8권 1호, 2019.

김자연 지음, 김백철 김기연 옮김, 『왕이라는 유산』, 너머북스.

김지영, 『천하례: 대명의리와 정조의 <사대예설>』,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김형중,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 - 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김호, 『영조의 대보단 증수와 명 삼황의 향사』, 『한국문화』 32, 2003.

배우성, 『중화 - 사라진 문명의 기준』, 푸른역사, 2024.

안외순, 『조선전기 중화주의와 내치 · 외교 관계』, 『동방학』 31, 2014.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이근호, 『영조의 명 태조 이해와 황단병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이명미, 『13~14세기 고려 · 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이욱,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 42, 2006.

자오팅양, 김중섭 역,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 아음, 2022.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1985.

_____,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최중석,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보편의 추구』, 『한국사연구』 180, 2018.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 3, 1982.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허태웅,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_____, 『조선왕조의 건국과 국호 문제』, 『한국사연구』 61, 2015.

Echoes of Righteousness

The Spatial Legacy of Daebodan and the Reaffirmation of Joseon's Founding Ideals in King Yeongjo's Reign

Kim, Jiyoung*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onstruction of the Daebodan shrin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erved two significant purposes beyond merely expressing gratitude for the dispatch of Chinese reinforcements. First, it reaffirmed the core principles of domestic governance and foreign policy established during the founding period of Joseon. Second, based on these principles, it sought to set the direction for the “re-creation (再造)” or “revitalization (重興)” of Joseon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in practice.

The reconstruction of Daebodan was undertaken with the recognition that, as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shrine should be established as a site commemorating moral righteousness (義理). Accordingly, the reconstructed shrine was not merely intended to continue the disrupted rites of the Ming dynasty but was designed to highlight the distinct virtues of the three emperors it enshrined — Hongwu (洪武), Wanli (萬曆), and Chongzhen (崇禎). The rationale for enshrining Emperor Hongwu, despite his lack of direct involvement in sending reinforcement troops, was that he had conferred upon Joseon its national title.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title of Joseon — centered on the keywords “Jizi” (箕子), “King Wu of Zhou” (周武王), and “the investiture of Joseon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as a vassal state” — reflects a unique perception that Joseon and the Ming shared a historical consciousness rooted in the Tianxia (天下) order of the Zhou dynasty. This perception underpinned the formation of Joseon’s identity, encompassing both domestic governance and diplomacy. By honoring Emperor Taizu, King Yeongjo sought to reassert the significance of the founding of Joseon and the state system established in the 15th century. On this basis, he aimed to recalibrate Joseon’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n the 18th century and to implement state reforms.

Following its reconstruction, Daebodan retained its spatial significance as a site for commemorating and preserving the founding order of the state and the bonds of trust and cooperation that extended beyond the state, lasting through the late 18th century.

Key words : Daebodan (大報壇, Shrine of Great Gratitude), Upholding the Great Righteousness of the Zhou (尊周大義), The Rites of Zhou (周禮), The National Title of Joseon, The Investiture of Jizi (箕子) as the Marquis of Joseon (朝鮮侯), The Re-creation of Joseon